

통제 · 일치 의 원 리 와 한국 어 존 칭 어 미

朴 秉 洙

I

70년대 초에 생성의미론 (generative semantics) 학파의 도전을 물리친 이후 Noam Chomsky가 이끄는 변형생성문법 이론의 주류는 이른바 표준이론 (standard theory), 확대표준이론 (extended standard theory), 수정확대표준이론 (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또 GB 이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등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미국과 유럽의 언어학계를 사실상 독주해 왔다. 그러나 70년대 말 내지 80년대 초에 이르러 Chomsky 학파는 다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Paul Postal 등의 관계문법 이론 (relational grammar), Joan Bresnan 등의 어휘기능문법 이론 (lexical functional grammar), 그리고 Gerald Gazdar 등이 주창하는 일반구절구조문법 이론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약칭 GPSG) 등 세가지가 그 대표적인 경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GPSG를 택하고 이 이론의 특징을 요약한 다음, 일치 (agreement) 현상을 설명하는 통제 · 일치 의 원 리 (control agreement principle)를 한국어의 존칭법 기술에 활용해 보려 한다.

Chomsky는 1950년대 중반에 이미 인간언어가 context-free language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형규칙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장치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이래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Gazdar (1981)는 그 결론과 주장이 시기상조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결론과 주장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에 원용된 언어자료들을 잘못 분석하였거나, 논증 자체에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변형규칙이 없는 통사 이론, 다시 말해서, context-free phrase structure grammar만으로써는 ‘언어의 의미있는 일반법칙들 (linguistically significant generalizations)’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따라서 GPSG는 non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변형이 없는 생성문법)을 표방함과 동시에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구분을 버리고 단일계층의 통사구조의 이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의미번역규칙 (semantic translation rules)을 모든 구절구조규칙 (phrase structure rules)에 자기 부여함으로써 표면구조만으로도 통사적 일반화는 물론 의미구조까지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장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의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GPSG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통제·일치의 현상을 다루는 것도 이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바로 GPSG의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GPSG의 통제일치의 원리는 통사적인 특징이 의미적 요인에 의존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된다. (아래의 통제·일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Gazdar *et al* (1984)에 의한 것이다.)

이 원리는 *controllee*와 *controller*의 개념에 바탕을 둔다. 쉽게 말해서 *controllee*란 *function*으로 번역되는 구성성분을 말한다. 가령 하나의 VP가 하나의 NP를 *argument*로 취하여 *sentence* 해석을 이룬다고 할 때 그 VP가 곧 *controllee*가 된다. 그리고 이때 *argument*로 취해지는 NP가 *controller*가 된다. 예컨대 'runs'가 'John'을 취하여 'John runs.'라는 문장이 되므로 'runs'가 *controllee*이고 'John'이 *controller*이다. 그런데 *controller*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예로 든 것과 같이 주로 Noun Phrase로서 한 *function*의 *argument*가 되는 *phrasal controller*가 그 하나이다. 또 하나의 *controller*의 종류는 *lexical controller*인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항상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어휘가 - *phrase*가 아니라 - *controll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Lexical controllers*의 의미적 특징은 자신이 하나의 *function*이면서도 직접 *argument*를 취하여 *sentence*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function*을 취하여 좀 더 복합적인 *function*을 이룬다는 데에 있다. 쉬운 예로서, 'will' 따위의 조동사를 들 수 있다. 'will'은 그 자신이 *function*이다. 그러나 'will'이 하나의 NP *argument*를 취하여 *sentence* 해석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function*, 가령 'run'과 같은 동사가 요구된다. 요컨대 'will'은 *function* ('will')에서 *function* ('will run')으로 가는 함수 (*function*)이다. 이러한 의미적 성질을 가진 동사(또는 형용사)가 *lexical controller*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run'이 그것의 *controllee*가 된다.

*Lexical controller*의 다른 예로 'seem'과 같은 "raising verbs"를 고려해 보자. 예컨대 'seem'도 'will'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function*인 *to*-infinitive, 예컨대, 'to work'를 취하여 복합적인 *function*, 'seem to work'를 이룬다. 그러므로 'seem'은 *lexical controller*이며 'to work'이 그 *controllee*가 된다.

여기서 *controllee*와 *controller*의 개념은 물론, *phrasal controller*와 *lexical controller*의 구분은 무엇이 *function*이고 무엇이 *argument*인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면 *function-argument*관계는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grammatical rule*의 한 부분인 의미번역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구절구조규칙 $\bar{V} \rightarrow \bar{N} \bar{V}$ 에 번역규칙 $\bar{V}(\bar{N})$ 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John runs.'에서 \bar{V} 인 'runs'가 *function*이요, \bar{N} 인 'John'이 그 *argument*이며 또한 *phrasal controller*임을 알 수 있다. 또 'seem'의 경우도 $\bar{V} \rightarrow \bar{V} \bar{V}[\text{INF}]$ 에 대하여 $\lambda \mathcal{S}[V'(\bar{V}(\mathcal{S}))]$ 라는 의미번역규

칙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seem to work’에서 V ‘seem’은 ∇ [INF] ‘to work’을 취하여 복합적인 function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eem’은 lexical controller가 되고 ‘to work’은 그 controllee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control의 개념을 이용하여 수립한 통제·일치의 원리를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통제·일치의 원리 (Control Agreement Principle)

- (i) Controllee의 CONCORD features는 phrasal controller의 그것과 일치한다.
- (ii) Lexical controller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CONCORD features의 AGR value가 controllee의 control feature value와 일치한다.
- (iii) Controller가 없는 경우에는 controllee의 control feature value는 그것의 mother의 control features를 따른다.

앞에 든 예문들로 돌아가서 위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자. ‘John runs.’가 위의 CAP(i)을 적용할 경우이다. ‘runs’가 controllee이고 ‘John’이 controller이므로 ‘runs’ (3인칭 단수형태)는 ‘John’ (3인칭 단수)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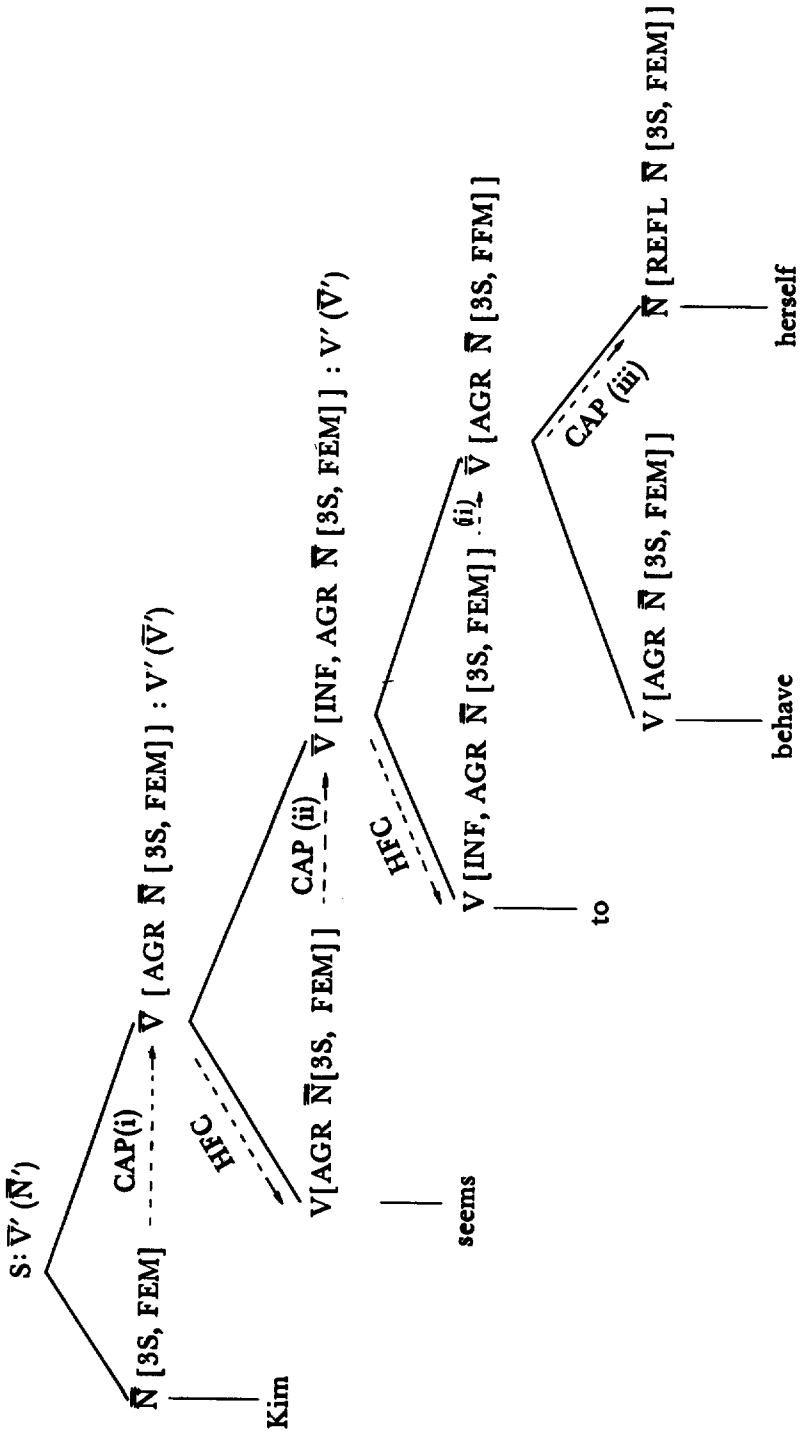
‘seems to work’에서 seems 형태는 CAP(i)에 따라 3인칭 단수 주어(즉, phrasal controller)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seems’가 lexical controller이고 ‘to work’이 controllee이다. ‘seems’의 AGR feature value인 3인칭 단수가 ‘to work’의 그것과 일치해야 하지만, ‘to work’이 부정사원형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것이 실현될 곳이 없다. (바로 아래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예를 검토할 것이다.) ‘will run’의 경우도 lexical controller인 ‘will’의 control feature가 controllee인 ‘run’의 그것과 일치해서 나타나야 하나 조동사의 성질상 그것이 실현되지를 않는다. 아래에서 lexical controller의 AGR feature가 실제로 controllee로 이전되어 실현되는 실패를 들어본다. 나아가서 CAP(iii)이 적용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 Kim seems to behave herself.

GPSG에 의하여 (1)의 구조를 대강 나타내면 다음 장의 (2)와 같다. (점선 화살표는 통제·일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이 문장의 구조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화살표가 controllee이고 그 반대 쪽이 controller이다.)

먼저 S의 의미번역에 따라 \bar{N} ‘Kim’이 argument이고 ∇ ‘seems to behave herself’가 function이므로 전자가 phrasal controller이며 후자가 controllee이다. 그러므로 CAP(i)에 의하여 ‘Kim’의 CONCORD features인 3s (third person singular)와 FEM (feminine)이 ∇ 의 AGR feature의 값이 된다. 다음에 이 두 자질이 V ‘seems’로 유전되는 것은 이른바 Head Feature Convention에 의한다 (HFC도 GPSG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간략히 말해서 HFC는 sisters 중의

(2)



HEAD가 mother의 head features (slash, reflexive, reciprocal 등과 관련된 features를 제외한 주요 feature 들을 head feature 라고 한다.)를 그대로 물려받게 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음에 \bar{V} 의 번역 $V'(\bar{V})$ 에 따라 V 'seems'가 lexical controller이며 \bar{V} 'to behave ...'가 controllee이다. 그러므로 CAP (ii)에 의하여 'seems'의 AGR features와 \bar{V} 'to behave ...'의 AGR features가 일치해야 한다. 다음에 HFC에 의하여 \bar{V} 의 AGR의 값 $\bar{N}[3s, FEM]$ 은 'to'로 이전되고 거기서 다시 CAP (ii)에 의하여 \bar{V} 'behave herself'의 AGR 값을 정해준다. 끝으로 \bar{V} 의 sisters 중에는 \bar{N} 'herself'가 controllee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controller가 없다. 따라서 CAP (ii)에 의하여 \bar{N} 'herself'의 CONCORD features는 mother node \bar{V} 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문장의 주어 'Kim'의 3인칭·단수·여성이라는 CONCORD features가 CAP와 HFC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삼투되어 'seems'라는 동사 형태와 'herself'라는 재귀대명사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다.

III

이 절에서 한국어 존칭어미(honorific) '-시'가 나타나는 현상을 CAP로써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존칭어미 '-시'는 주어가 존칭일 때 본동사에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논의도 많이 되었다.

- (3) a.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우신다.
b. *내가 영어를 배우신다.

(3a)에서 주어 '할아버지'가 존칭이므로 본동사 '배우신다'와 잘 어울린다. 그러나 (3b)의 주어 '나'는 존칭이 아니므로 '배우신다'를 쓸 수 없다. Shibatani (1976)는 이 현상을 이용하여 중주어구문에서 정말 주어가 어느 것인지 가려내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4) a.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시다.
b. 나는 돈이 많다.
c. *나는 돈이 많으시다.
(5) *돈이 많으시다.

(5)의 주어가 '돈'이라고 할 때 '-시'를 쓸 수 없다. 그 점이 (5)가 비문인 이유라고 하면 (4a)에서 '-시'가 일어나도 정문인 것은 (4a)의 주어는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

1) 재귀대명사의 일치현상은 실은 Foot Feature Principle (FFP)에 의하여 결정되나 여기서 이것을 삼본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CAP(ii)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해둔다. FFP에 대해서는 Gazdar and Pullum (1982)와 Gazdar et al (1984) 참조.

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b)와 (4c)에서도 ‘나’를 주어로 보고 ‘-시’는 존칭주어에 의존한다고 보면 (4b)의 정문과 (4c)의 비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중주어 문제는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주어와 ‘-시’ 사이에 의존적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가 주어가 없는 경우에도 나타날 때가 있으며, 주어가 아닌 다른 구성성분에 의존하는 현상도 있다는 점이다.

- (6) 할아버지가 나에게 영어를 배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7) 나는 할아버지에게 영어를 배우시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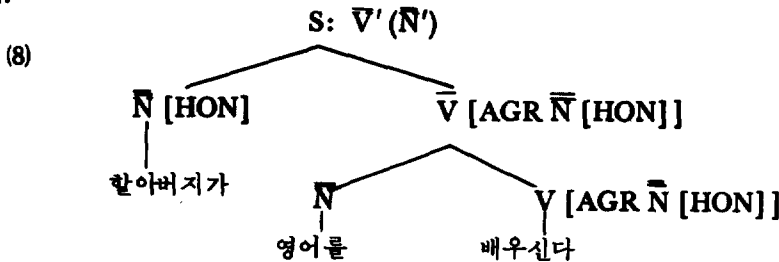
(6)의 ‘약속하셨다’의 ‘-시’가 존칭 ‘할아버지’에 의존한다고 하면 ‘배우시겠다고’의 ‘-시’가 의존할 종속절 주어가 없다. 반대로 ‘할아버지’를 종속절의 주어로 보면 ‘약속하셨다’의 ‘-시’를 통제할 주어가 없다.

(7)에서는 ‘배우시게’의 ‘-시’는 주어가 아닌 ‘할아버지에게’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하여 (6)의 경우에 실제 문장에 없는 또하나의 ‘할아버지’를 심층구조에 등장시켜 종속절의 주어로 삼고 ‘배우시겠다고’의 ‘-시’를 설명한 다음 **EQUI-NP deletion**으로 그것을 삭제하여 표면구조를 얻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종래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의 설명방법이 될 것이다. 또 (7)의 경우에는 표면에 ‘할아버지에게’로 나와 있으나 심층구조에서는 ‘배우시게’의 주어 ‘할아버지가’로 나타나야 하며 이것이 **RAISING** 변형규칙에 의하여 ‘할아버지에게’로 상승되어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GPSG는 이런 변형적 설명방법을 버린다. **GPSG**의 기본인 단일계층의 통사구조와 **non-transformational phrase-structure grammar**로써 이 현상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 **GPSG**의 **phrase-structure rules**이 보장하는 단일계층의 문장의 구조-즉, 표면구조-, 각 구절구조규칙의 의미적 **contributions**를 정의하는 의미번역규칙, 그리고 **CAP**와 **HFC**로써 한국어 ‘-시’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4)와 (5)는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3), (6), (7)을 생각해 보자. (3a)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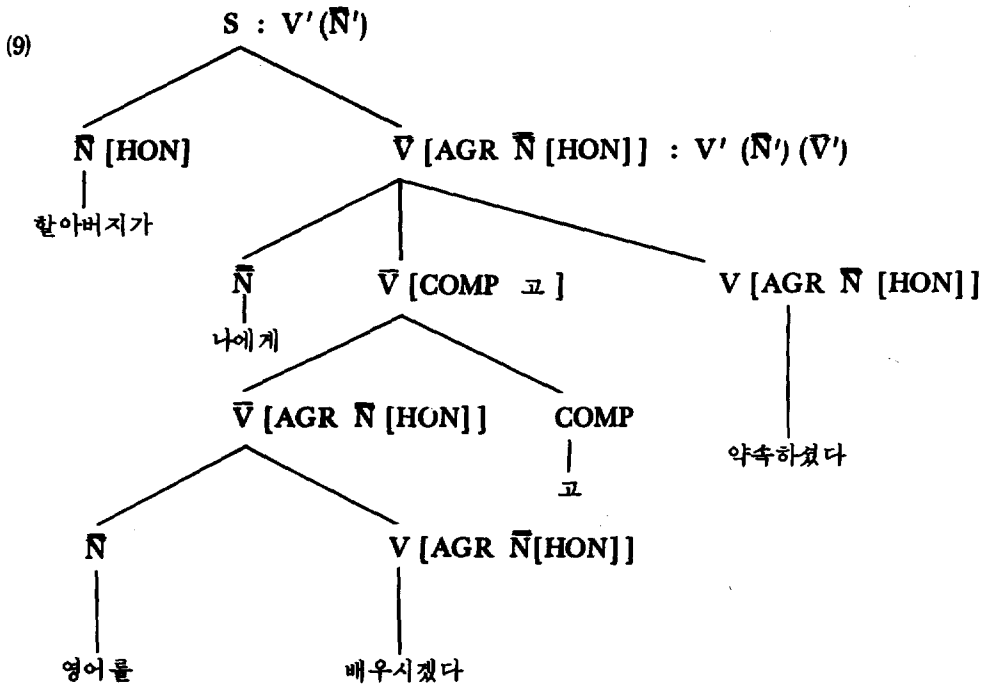


번역규칙 $V'(N')$ 에 따라 ‘할아버지’가 **phrasal controller**가 되고 V (‘영어 배우신다’)가 **controllee**가 된다. 그러므로 **CAP** (i)에 의하여 V 의 **AGR**값은 N ‘할아버지’의 **CON-**

CORD feature 와 일치해야 한다. 즉, 존칭자질 HON이 양쪽에 나타난다. 다음에는, Head Feature Convention 에 의하여 \bar{V} 의 AGR feature 가 그대로 head인 V ‘배우신다’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3a)의 주어 ‘할아버지’와 동사 ‘배우신다’가 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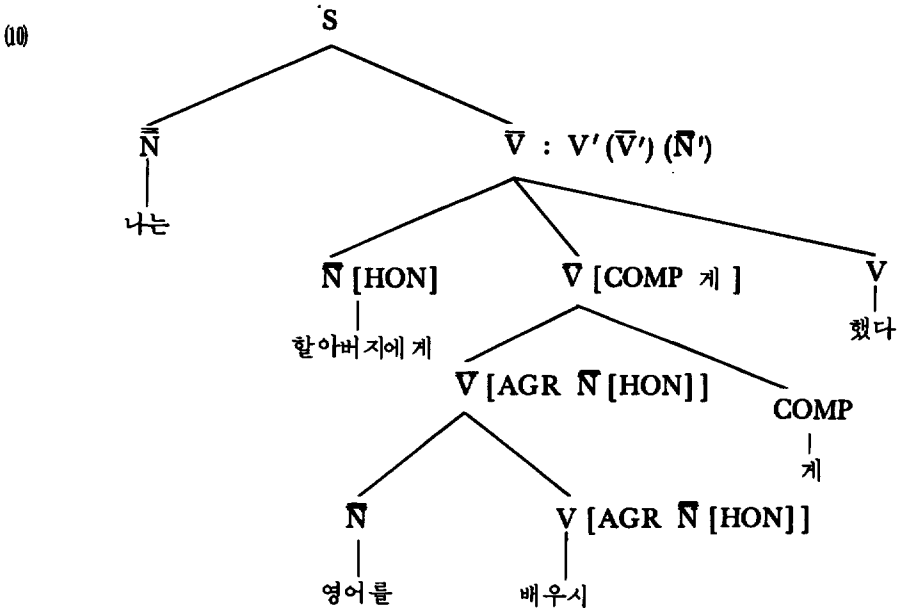
(3b)에서는 동사에만 [HON]이 나타났고 그것과 일치해야 할 주어 ‘나’에는 [HON]이 없으므로 CAP(i)이 지켜지지 않은 문장이므로 비문이 된다.

(6)과 (7)의 통사구조는 각기 (9)와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구조에서 시제와 종결어미의 처리는 생략하였다. 이 문제도 GPSG에서 상세히 다루어야 할 중요 과제이기는 하나 여기에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므로 이를 일단 생략하고 후에 다른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9)에서 먼저 \bar{N} ‘할아버지’ [HON]이 phrasal controller인 점에 유의하라. 그러므로 그것의 sister인 \bar{V} 가 controllee가 되고, 따라서 ‘할아버지’의 [HON]이 \bar{V} 의 AGR 자질과 일치하게 된다. 이 자질은 다시 HFC에 의하여 V ‘약속하셨다’로 이전된다. 그런데 ‘약속하다’가 포함된 \bar{V} 의 번역이 $V'(\bar{N}')(\bar{V}')$ 이므로 V ‘약속하다’가 lexical controller가 되고 \bar{V} ‘영어를 배우시겠다고’가 controllee가 된다. 그러므로 ‘약속하셨다’의 AGR 자질 \bar{N} [HON]이 \bar{V} [COMP 고]로 이전되고 이것이 다시 HFC에 의하여 계속 아래로 삼투되어 ‘배우시겠다고’까지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문장 (6)의 주어 ‘할아버지’가 주절의 동사 ‘약속하셨다’와 종속절의 동사 ‘배우시겠다고’에 나타나는 ‘-시’를 통제하는 현상을 변형규칙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주어진 단일계층의 구조 (9)만으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구조 (10)에서 먼저 유의할 점이 사역동사 ‘했다’가 포함된 \bar{V} 의 번역이다. V ‘했다’가 \bar{V} [COMP 게]를 취하여 복합적인 function이 되고 이것이 \bar{N} ‘할아버지에게’를 argument로 취한다. 그러므로 \bar{N} ‘할아버지에게’가 phrasal controller이며 \bar{V} [COMP게]가 controllee가 된다. 따라서 CAP(ii)에 의하여 \bar{N} ‘할아버지에게’의 [HON]이 \bar{V} [COMP 게], 그리고 \bar{V} [AGR \bar{N} [HON]]와 일치하게 된다. 그런 다음 HFC에 의하여 V ‘배우시게’로 이전된다.

종래 변형문법에서는 EQUI-NP 삭제라든가 RAISING 등의 변형규칙을 수립함과 동시에 표면문장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심층구조의 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때 흔히 문장 (6)과 (7) 같은 자료를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GPSG가 그러한 변형적 장치와 추상적 심층구조를 설정하지 않고도 그러한 문장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나아가서 ‘-시’가 단순히 통사적 의미에서 주어와 일치한다는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가 대체로 옳기는 하나 엄격히 검토할 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6)의 경우 종속절의 주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동사에 ‘-시’가 올 수도 있으며 (7)의 경우 종속절 동사의 ‘-시’가 주절의 여격명사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존칭어미 ‘-시’와 선행 존칭명사와의 의존관계는 문장의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제·일치의 원리 (CAP) 로써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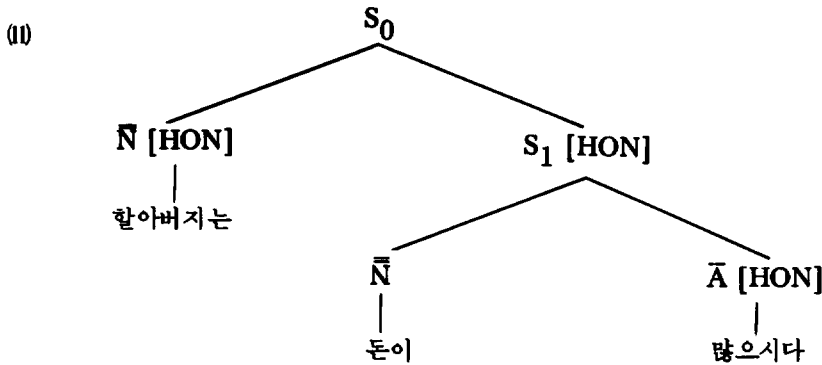
다음에는 뒤로 미루어 놓았던 (4), (5) 등 중주어구문에 나타나는 존칭어미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편의상 (4)와 (5)를 여기 다시 써둔다.)

- (4) a.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시다.
 b. 나는 돈이 많다.
 c. *나는 돈이 많으시다.
 (5) *돈이 많으시다.

먼저 (5)가 비문인 이유와 (4c)가 비문인 이유는 같은 표현 ‘돈이 많으시다’가 두 문장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는 주어 ‘돈’이 아닌데 형용사에 존칭어미 ‘-시’가 붙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그러나 (4c)가 비문인 것은 ‘나’가 존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4a)에서의 ‘많으시다’는 존칭 주어 ‘할아버지’와 일치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둘째로, 필자는 일찍부터 중주어구문의 통사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예컨대, (4a)에서 ‘할아버지’와 ‘돈’을 둘 다 주어로 보되 전자는 주절의 주어이고 후자는 종속절의 주어라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필자의 논문(1973), (1982)참조) 이를 나무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되겠다.(종래의 필자의 견해에다 GPSG의 feature 장치를 가미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할아버지’와 ‘많으시다’가 일치하는 현상을 CAP로써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많으시다’가 그 주어인 ‘돈’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 문제는 필자의 논문(198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₁ ‘돈이 많으시다’가 주부 N̄ ‘할아버지’의 술어 역할을 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쉽게 풀린다. 필자의 이 가정은 Gunji(1984)의 중주어구문에 관한 견해와 통하는 점도 있다. Gunji는 (4a)와 같은 문장을 Type II topicalization에 포함시키고 있다. Type II topicalization의 특징은 topic에 해당하는 하나의 명사구가 완전한 문장(즉 “gap”이 없는 S)을 수반하여 전체 문장을 이루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4a)에서 ‘할아버지는’이 topic이고 ‘돈이 많으시다’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4a)와 같은 문장이 Type II topicaliza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S₁을 그대로 술부라고 보든 topic의 comment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보든 의미적으로는 S₁이 function이며 N̄ ‘할아버지’가 argument가 될 것이다. 따라서 S의 의미번역이 S₁(N̄)로 된다. 그러므로 S₁ ‘돈이 많으시다’

가 *controllee*이고 \bar{N} ‘할아버지’가 *phrasal controller*이다. 그렇다면 CAP(i)에 의하여 ‘할아버지’의 [HON]자질이 S_1 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S_1 의 [HON]은 *Head Feature Convention*에 의하여 S_1 의 *Head sister*인 \bar{A} 로 이전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bar{A} ‘많으시다’가 그 주어 ‘돈이’와 일치되지 않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의 의미 번역규칙을 특별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II)의 S_1 의 번역은 ‘돈이 많다’가 독자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되는 (5)와 같은 경우의 의미번역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5)의 번역은 보통 문장의 예와 같이 \bar{A} (\bar{N})로 하되, (II)의 S_1 의 번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II) $\lambda \mathcal{P}[\bar{N}' - \bar{A}' (\mathcal{P})]$

$\bar{N}' - \bar{A}'$ 는 \bar{N} 과 \bar{A}' 이 그대로 연결되어 새로운 *function*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function*은 *one-place predicate*로서 그 *argument*는 한 단계 더 높은 S_0 수준에서 채워지게 된다. (II)의 S_1 의 번역은 따라서 $\lambda \mathcal{P}$ [‘돈이’ - ‘많으시다’] (\mathcal{P})로 나타나며 S_0 는 $\lambda \mathcal{P}$ [‘돈이’ - ‘많으시다’] (\mathcal{P}) [‘할아버지’]와 같은 의미번역을 부여받는다. 이 의미번역은 요컨대 “할아버지의 한 속성이 돈이 많으심”이라는 의미의 표현에 귀결되는 바, 이는 *Gunji*의 *Type II topicalization*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하겠다. 위의 λ 표현을 λ 전환시키면 “돈이 - 많으시다 (할아버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돈이 - 많으시다’가 *function*이고 그것의 *argument*가 ‘할아버지’인 *topicalized sentence*의 의미와 비슷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

GPSG에서 통제·일치의 원리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한국어 존칭어미 ‘-시’의 분포현상의 검토를 통하여 GPSG의 그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본 셈인데 아직도 중주어구문에 나타나는 ‘-시’의 문제가 완전히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등 몇 가지 미진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의 주어-동사의 수와 인칭의 일치현상, 재귀대명사의 성과 수의 일치현상 등을 설명하는 통제·일치의 원리가 한국어의 존칭 어미와 존칭 명사 사이의 일치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GPSG의 통제·일치의 원리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그러나 ‘주다’, ‘드리다’와 같은 비존칭과 존칭의 동사의 대립, 또 ‘밥’과 ‘진지’와 같은 비존칭 명사와 존칭 명사의 대립 등과 같은 현상도 통제·일치의 원리로써 설명할 수 있는 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BIBLIOGRAPHY

- Gazdar, G. 1981. "Phrase Structure Grammar." in P. Jacobson and G.K. Pullum (eds). *The Nature of Syntactic Representation*. D. Reidel Publishing Co.
- Gazdar, G. and G.K. Pullum. 1982.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A Theoretical Synopsis." Indiana Linguistics Club.
- Gazdar, G., E. Klein, G.K. Pullum, and I. Sag. 1984.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in press.
- Gunji. 1984. *A Phrase Structural Analysis of the Japanese Language*. ms.
- Park, B.S. 1973. "The Korean Verb *ha* and Verb Complementation." *Language Research* 9: 2.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B.S. 1982. "The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Revisit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Park, B. S. 1983. "문장술어 (Sentential Predicate) 의미론 : 중주어구문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의 의미 교차." 「말」 제 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Shibatani, M. 1976. "Relational Grammar and Korean Syntax." *Language Research* 12: 2.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